



# 영국 보험업계, 브렉시트(Brexit) 우려 표명

권오경 연구원

## 요약

■ 브렉시트에 대한 국민투표일이 확정된 가운데 영국 보험업계에서는 EU 탈퇴 시 단일시장의 경제적 이익 및 글로벌 보험산업의 주도권을 상실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임. 보험업계의 우려는 영국 경제 및 금융전반의 공동된 의견으로 EU 탈퇴 시 금융중심지의 위상이 흔들릴 것으로 예상됨.

■ 영국의 EU 탈퇴 여부를 결정하는 브렉시트(Brexit)에 대한 국민투표일이 확정되면서 영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음.

● 브렉시트 국민투표일이 오는 6월 23일로 예정되었으며, 영국 파운드화의 가치가 급락하여 한때 7년 이래 최저치로 하락함.<sup>1)</sup>

-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영국 파운드화의 위기(sterling crisis)를 초래하여 영란은행이 경제위축에도 통화 가치 신뢰를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분석되고 있음.<sup>2)</sup>

■ 영국 보험업계는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보험산업의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 영국 보험산업은 2014년 EU 전체 보험료 수입의 20.7%를 차지<sup>3)</sup>하는 유럽 최대의 보험시장이며, EU의 많은 보험사가 영국에 사업본부를 두고 있음.

- 2015년 영국 내 보험사업자 중 생명보험사의 47.2%, 손해보험사의 62.3%가 EU 기업이고 영국을 기반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EU 사업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함.<sup>4)</sup>

1) 보리스 존슨 런던 시장이 EU 탈퇴를 지지한다는 소식에 미국 달러 대비 파운드화 가치가 2009년 이후 최저치인 1.40 아래로 하락함.

2) BlackRock(2016, 2), *Brexit: Big Risk, Little Reward—the UK Referendum on Europe*.

3) Insurance Europe(<http://www.insuranceeurope.eu/insurancedata>).

4) ABI(2016), *UK Insurance & Long Term savings Key Facts 2015*.

- 또한 현재 런던이 주도하고 있는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의 경우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그 주도권을 경쟁국인 싱가포르나 일본에 빼앗길 것으로 예견되고 있음.<sup>5)</sup>
    - 전 세계 해상보험시장은 180억 달러로 추정되는데, 그 중 1/3이 런던에 집중되어 있고, 런던 기반 해상보험사업 중 약 40%가 EU와의 국경 간 거래(cross-border) 사업부문임.
    - 미국 보험브로커회사인 Marsh는 런던을 기반으로 EU 보험시장에서 영업하는 동안 여권면제(passport-free) 혜택으로 낮은 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브렉시트는 추가적인 지역 본부 개설을 초래하여 잠재적인 비용 상승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30만 명 이상에 이르는 영국의 보험산업 종사자 중에서 EU 출신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도 EU 탈퇴가 보험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함.
- 영국 Lloyd's는 브렉시트에 대한 반대의견을 적극 표시하였는 바, 브렉시트는 수입보험료가 600억 파운드 규모로서 GDP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영국 보험시장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발표함.<sup>6)</sup>
- 영국이 EU 회원국 지위로 단일시장 접근, 해외투자 촉진, EU 외 국가와의 통상 편의의 이익을 누릴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영국 보험업계가 세계 최고로 성장해 왔다고 평가
  - 브렉시트가 보험 규제완화(regulatory nirvana)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고 오히려 EU 탈퇴로 각 지역 사업본부마다 Solvency II 자본규제가 적용되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
- 또한 영국 생명보험사 측면에서는 브렉시트가 투자자의 신뢰성을 상실시키고, 손해보험사 측면에서는 높은 EU 사업의존도가 재편될 것이라며 보험업계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주장함.
- 영국 최대 생명보험사인 Standard Life는 브렉시트가 투자자들의 장기투자에 대한 신뢰를 깨트리게 되고 영국 경제에 잠재적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함.<sup>7)</sup>
  - 영국 보험그룹인 RSA는 50% 이상이 EU 사업부문에 의존하고 있다며, 경쟁구도 재편이 일어나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함.<sup>8)</sup>
- 브렉시트 우려는 영국 보험업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영국 경제 및 금융 전반의 공통된 의견으로, 결과적으로 런던시티(The City of London)라는 금융허브의 위상도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kiri**

5) Financial Times(2016. 2. 23), What the City stands to lose and gain from Brexit.

6) Lloyd's(2016. 2. 24), The Implications of Brexit for the London Insurance Market.

7) The Guardian(2016. 2. 24), Standard Life sounds Brexit warning.

8) Reuters(2016. 2. 25), Insurer RSA warns over Brexit impact.